

군산 도서지역 불법행위로 '몸살'

유상운송행위 등 상업시설 주변에 성행... 단속조차 무용지물

지난해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이후 방문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도서지역은 최근 들어 속속 들어서는 상업시설 주변에 불법이 관을 치고 있다. 도서지역의 불법행위는 십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공유지 및 사유지에 지어진 불법건축물 내 불법영업을 시작으로 불법점용, 유상운송행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3륜 전기자전거, 이륜 전가차를 비롯해 휘발유를 사용하는 이륜차(오토바이) 등의 운행행위 등도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과 식중독 등의 위생불량

으로 인해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개인의 이익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고소와 고발이 발생해 갈등이 생겨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시 담당부서 직원들은 휴일도 반납하고 강력한 지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주말이면 교대로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너무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공유재산점유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과 같이 관련 부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군산시 도서지역에 3륜 전기자전거, 이륜차 등 불법 운행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협조를 받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대로 둔다면 도서지역은 무법천지로 변하고 만다"며 "지금이라도 보

다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오고 싶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군산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주얼리 임대공장 건립사업 준공

익산시가 '주얼리 임대공장 건립사업'이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패션단지 에 건립된 주얼리 임대공장 건립사업은 대지면적 6,914.8㎡, 연면적 1,196㎡ 공장 2동을 신축한 것으로 지난 10월 24일 준공됐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초기 투자비용 부담, 성공 불확실성 및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임대 공장 공급이 필요하다는 중국 현지 여론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18년 익산시가 시범사업으로 38억원을 투입, 형틀 제작, 주물 생산, 연마, 조립 가공, 접착, 검사 등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공간을 구축하게 된 것.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장인 (주)하이주얼 대표 박상명 회장은 "임대공장 건립사업 준공시기에 맞춰 인력채용부터 상품개발까지 철저히 준비해 왔으며, 익산 생산품 20만불을 최초 11월 말 수출선적 목표로, 제품 생산에 박

차를 가지고 있다."며,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익산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춘 문화산업국장은 "(주)하이주얼 입주자 마중물이 되어 해외진출 주얼리 기업이 익산에 관심을 갖고 문을 두드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익산의 임대 공장은 그 해답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진출기업이 다시 익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왔다. 지난 10월 산업부 해외투자과장과 국내복귀기업간의 간담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얻은 바 있으며, 산업부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11월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간부공무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군산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군산시는 6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C)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선7기 군산시 간부공무원, 소통으로 새롭게 간다 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강창희 전 미래에셋 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미래를 향한 소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강임준 시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 이어지는 등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져 격식 없는 대화를 통해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군산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은 침체된 군산경제로 인해 시민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상황 속에서,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

통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강임준 시장은 "자유로운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리더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시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군산을 사랑하고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튼튼한 자립도시 군산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며 시 행정의 핵심리더인 중견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명상숲 조성사업 대상학교 모집

군산시는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녹색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2019년 명상숲 조성사업 대상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초·중·고,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등이며 명상숲 조성을 희망하는 학교는 20일까지 군산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의 명상숲 조성사업 지침에 따라 대상학교별 사업비 적정성 등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각 분야 전문위원으로 심

사위원을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조성학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심문때 산림복지과장은 "편안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명상숲 조성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많은 교육기관의 참여를 당부했다. 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27개 학교를 대상으로 명상숲을 조성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포토갤러리 오픈

주요시정 행사·지역축제·관광명소 등 공개

익산시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1월부터 지역축제 및 문화, 관광 등 시정 사진을 공유한 익산포토갤러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익산시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익산포토갤러리(http://gallery.iksan.go.kr)는 편리한 사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정행정, 행사축제, 문화관광 등 7개 분야로 세분화했으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 기능을 구축했다. 특히, 풍경배경 분야에는 논밭이, 모내기, 쥐잡기 캠페인, 마을 풍경 등의 정겨운 옛 익산시의 모습을 담았으며, 1968년부터 현재까지 익산시가 지나온 발자취를 게재해 시민들과 함께 추억하고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익산포토갤러리는 익산시 대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를 방문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젊은 세대를 및 지역축제, 관광명소 등 다양한 자료를 공개했다. "앞으로도 시에서 생성되는 각종 사진 및 자연풍경, 홍보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을 펼쳐나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작품 공모전

익산소방서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어린이 불조심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불조심 작품 공모전'은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어린이들의 화재예방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로 공모대상은 익산 관내의 전 초등학생이며 4개분야(포스터, 표어, 그리기, 글짓기)로 나눠 진행된다. 작품모집은 11월 24일 오후5시 까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지며 각 분야별로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5명, 장려상 15명을 뽑게

되며 별도 시상도 이뤄지게 된다. 또한 불조심 포스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전라북도 불조심 포스터 공모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방호구조과 노승환(063-839-234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소방서 소재실 방호구조과장은 "11월부터 이어지는 추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위험이 어느때보다 높다. 시민들의 화재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불조심 작품 공모전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한국부인회 익산지회, 장학기금 마련 의류바자회

9일까지 개최

한국부인회 익산지회(회장 신혜경)는 청소년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익산시 중앙동1로 3-1(정관장 옆)에서 여성의류바자회를 연다. 여성의류바자회는 가을·겨울 신상품과 다양한 이월상품을 포함해 백화점에 납품되는 유명브랜드 의류를 유통과정 없이 판매하고 있어 좋은 옷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며,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 신혜경 회장은 "여성의류바자회

를 통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며 "웃으로 특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지회는 1981년부터 시작된 여성의류바자회는 올해로 37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연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하고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펼쳐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역사회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